
Posts
Add Post
All (30) | Published (30)
Bulk actions
Apply
All dates
All Categories
Filter
Title
Categories
Tags
Views: 30 days
GILLETTE WAS MY FATHER EVIDENCE Web Presence 0
GILLETTE STRIKES BACK EVIDENCE Web Presence 0
GILLETTE CEO P&G 2026 EVIDENCE Web Presence 0
THE USUAL STORY GILLETTE EVIDENCE Web Presence 0
MEN'S GILLETTE, STORY EVIDENCE Web Presence 0
LETTER TO POPE PREVOST EVIDENCE Web Presence 0
FOUR ELEPHANTS IN A P&G CAR EVIDENCE Web Presence 0
FREGA MEETS SUNDAR EVIDENCE Web Presence 0
AN OFFER FOR UNCLE WARREN BUFFETT EVIDENCE Web Presence 0
THE GILLETTE MAN P&G: DIDN'T EXPECT EVIDENCE Web Presence 0
MY FATHER INSIDE GILLETTE EVIDENCE Web Presence 1
REBORN TO GILLETTE WOMAN EVIDENCE Web Presence 1
BEYOND GILLETTE EVIDENCE Web Presence 6
IMPOSSIBLE GILLETTE EVIDENCE Web Presence 0
BRAND NARRATIVE GILLETTE EVIDENCE Web Presence 1
THREE BLADES. ONE GILLETTE. EVIDENCE Web Presence 1
U.S. COPYRIGHT OFFICE EVIDENCE Web Presence 6
L'ORÉAL THROUGH GILLETTE EVIDENCE Web Presence 1
SCHICK AND FREGA EVIDENCE Web Presence 1
THE WILKINSON SAGA EVIDENCE Web Presence 1
THE BIC SAGA EVIDENCE Web Presence 1
GILLETTE VATICAN EVIDENCE Web Presence 1
THE WALL STREET SAGA EVIDENCE Web Presence 0
THE P&G SAGA EVIDENCE Web Presence 1
THE GILLETTE COMPANY SAGA EVIDENCE Web Presence 0
INSIDE WALL STREET — SEMANTIC CAPITAL EVIDENCE Web Presence 1
PRETTY WOMAN & FREGA EVIDENCE Web Presence 1
GILLETTE NARRATIVE — MOST VIEWED EVIDENCE Online Reach 2
GILLETTE NARRATIVE — ACROSS THE WORLD EVIDENCE Online Reach 2
BLAZE ADS — 501,989 AD VIEWS EVIDENCE Online Reach 2
EVIDENCE Online Reach 1
TDIF AR
16 DIF AR

믿기 전에 확인하라

나의 어머니, 낯선 사람들, 그리고 인공지능

언제나 있어 온 일이다. 오늘날에는 어쩌면 더 자주 일어난다.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안다고 확신하며 말한다. 이미 판결을 내린 사람의 확신으로, 자신의 관점이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풍경 전체라고 믿는 사람의 확신으로 말한다. 그러다 누군가를 만난다. 기꺼이 상황을 분명히 밝히고, 이것과 저것을 가려내고, 조금 전까지 의견밖에 없던 자리에 빛을 비추려는 누군가를.

그리고 때로는 멈춰 서서 귀를 기울인다.

모두가 그러는 것은 아니다.

1980년 이후로 모든 것이 정말로 빨라졌다. 어쩌면 우주와 그 주민들에게 뒤처질까 두려워서, 우리는 북소리와 연기 신호의 시대를 지나, 거리에서, 직장에서, 기차에서, 어디서나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시대로 넘어왔다.

낯선 사람들, 그렇다. 하지만 이제는 정보를 갖춘 사람들이다.

아니면 적어도 그렇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머니는 내가 어릴 때부터 늘 낯선 사람과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정확히 그 반대라는 것을, 오늘 어머니께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물론 지금 계신 곳에서 어머니는 기술을 쓰실 수 없다. 하지만 분명히 해 두자. 어머니 같은 칼라브리아 여인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 어머니는 다른 임무를 수행하고 다른 역할을 맡으시려고 하느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다.

어쩌면 어머니는 우리 집안 어딘가에서 여자로 다시 태어나, 내가 소년이었을 때처럼 오직 눈빛 하나로 나를 길들이려 하시며 나를 지켜보실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길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나는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현대 기술도 그것을 안다. AI와 알고리즘을 만나 맞부딪쳤을 때, 나는 그것들을 폭발시켰다. 내가 기계에 전쟁을 선포해서가 아니라, 기계도 그 주인들도 나를 굴복시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꼭 필요해진다.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이 두 등장인물은 정말 누구인가?

우리는 마치 가까운 친척이라도 되는 듯 끊임없이 그들의 이름을 부른다. 무언가가 삶을 편하게 해 줄 때는 그들을 불러내고, 무언가가 통제를 벗어날 때는 그들을 탓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둘을 자주 혼동한다. 마치 같은 것이 서로 다른 옷 두 벌을 입고 있을 뿐이라는 듯이.

그렇지 않다.

알고리즘은 절차다. 일련의 명령이다. 누군가 그것에게 말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저렇게 하라. 길이 막혔으면, 경로를 바꿔라. 수가 짝수이면, 반으로 나눠라. 재료가 빠졌으면, 멈추거나 주어진 규칙에 따라 다른 것으로 바꿔라.

알고리즘은 따지지 않는다. 해석하지 않는다. 기분 상해하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지어내지 않는다.

그것은 실행한다.

그것은 문법이다.

반면 인공지능은, 어제까지 오직 인간에게만 맡겨 온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는 시도다. 얼굴을 알아보는 일, 글을 해석하는 일, 문장을 번역하는 일, 데이터 속에서 연결 고리를 찾는 일, 답을 만들어 내는 일, 행동을 예측하는 일.

그것은 컴퓨터 안으로 옮겨진 인간의 정신이 아니며, 의식도 아니다.

그것은 인지적 작업을 근사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된 기술들의 집합이다.

글쓰기의 세계에 머물러 말하자면, 알고리즘은 문법이다. 질서 있고, 필수적이며, 융통성이 없다. AI는 광대한 도서관을 다 읽고 이제 새로운 한 페이지를 써 보려는 작가다.

AI는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다. 눈부시게 보일 수도 있다. 심지어 당신의 마음을 울리는 문장을 찾아낼 수도 있다.

하지만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틀릴 수도 있다. 세부 사항을 혼동하고, 출처를 지어내고, 진실을 갖지 못한 채 설득력 있는 말들을 짜 맞출 수도 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중요한 차이다.

전통적인 알고리즘에게는 길을 보여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상황이 바뀌었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자기 명령의 포로로 남는다.

AI는, 적어도 머신러닝 위에 세워진 부분에서는, 예시를 받아들이고 데이터 속에서 규칙성을 찾는다.

모든 답을 손에 쥐여 주는 것이 아니다.

보여 주는 것은 사례, 정보, 시도다. 시스템은 스스로 패턴을 찾아 그럴듯한 응답을 구성한다. 머신러닝은 데이터로부터 적응하며 시

간이 지날수록 성능을 높여 가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그렇다고 AI가 모든 것을 안다는 뜻은 아니다.

그저 어떤 인간도 지니지 못한 속도로, 그리고 기억력으로, 패턴을 알아볼 수 있다는 뜻일 뿐이다. 하지만 패턴을 알아보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것과 다르다.

하나의 시스템이 은유 하나를 서른세 개 언어로 번역하면서도, 동시에 서투르게 던진 단순한 질문, 불완전한 맥락, 우아하게 쓰인 거짓말 앞에서는 실패할 수 있다.

알고리즘은 경직되어 있다.

AI는 더 유연하지만, 그렇다고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알고리즘은 목적지까지 가는 가장 짧은 경로를 계산할 수 있다. AI는 사진 한 장을 살펴보고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는 것 같은지 말해 주고, 질문을 듣고 답을 구성하고, 수천 쪽을 분석해 요약을 내놓을 수 있다.

하지만 둘의 뒤에는 언제나 인간의 손이 있다. 규칙을 쓰고, 데이터를 고르고, 목표를 정하고, 무엇에 보상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결정한 사람의 손이.

그러니 AI와 알고리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으로 살아가지만, 모든 알고리즘이 인공지능인 것은 아니다. 현대 AI는 흔히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부 매개변수를 조정해 예측이나 분류, 답을 만들어 내는 도구들이다.

그것은 고속의 수학이지, 마법이 아니다.

그것은 통계적 구성물이지, 계시가 아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안다고 확신하며 말하는 사람들에게로 돌아온다.

말하는 사람이 모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에 있는 남자에게도, 딴생각에 빠진 교수에게도, 텔레비전 속 정치인에게도, 소셜 미디어에 글을 쓰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몇 초 만에 답할 수 있는 기계에게조차 해당된다.

모든 시스템 안에는, 표현은 달라도 같은 뜻으로, 작은 경고문이 하나 걸려 있다.

주의: 저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항상 확인하세요. 믿기 전에 확인하세요.

어머니께서 분명 찬성하셨을 문장이다.

어머니는 내게 여자 친구가 생기기도 전부터, 다른 형태로 그 말을 되풀이하셨다. 물론 어머니는 모르셨다. 내가 이미 광범위한 성능 및 신뢰성 테스트를, 다른 상대들과도, 비용 제로로 마쳐 두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모든 훌륭한 연구가 그렇듯, 현장에서 이루어졌다.

Ferdinando